

# “너무 무거워요!”

20대 초반의 A양은 너무나 큰 가슴 때문에 고통 받아왔다고 있었다. A양은 사춘기 때부터 급속히 커지기 시작한 가슴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한참 예민할 나이에 모든 별명과 놀림이 신체의 한 부분인 가슴으로 쏠리자 그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20대 초반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남들처럼 예쁜 옷도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아줌마처럼 평퍼짐한 옷만 입어야 했다는 A양을 보자 같은 또래의 딸을 둔 아빠로서 가슴이 아팠다.



이 찬 휘  
SBS 과학정보부장

지난 한 달간 20대 미혼 여성 환자를 추적 취재했었다. 이 환자는 일반 여성에 비해 가슴이 큰 편이었다. 여성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취재를 의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예상외로 환자가 흔쾌히 취재에 응해준 덕분에 지난 한 달간 자세히 취재할 수 있었다.

가슴이 작아 고민하는 여성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가슴은 땀이나 속옷을 이용해서 커버라도 할 수 있으나 큰 가슴은 가릴 수도 없다. 또 작은 가슴은 다양한 확대 수술 방법과 시술하는 의사들도 상당히 많아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큰 가슴의 축소술은 시술하는 의사가 몇 되지 않는다. 특히 작은 가슴 확대는 어디까지나 아름다워 보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은 없다.

그러나 큰 가슴은 ‘그저 가슴이 크다.’라고 볼 문제가 아닌 ‘거대 유방증’이라는 질병으로 취급해야 한다. 너무 무거운 가슴을 가진 많은 여성이 어깨와 목 결림, 피부병, 허리 디스크 같은 고통을 실제로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체적인 고통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많다.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많은 놀림을 받게 되면 대인관계는 물론 사람들을 피하게 되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때문에 가슴 큰 여성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20대 초반의 A양은 너무나 큰 가슴 때문에 고통받아왔다고 하였다. A양은 사춘기 때부터 급속히 커지기 시작한 가슴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한참 예민할 나이에 모든 별명과 놀림이 신체의 한 부분인 가슴으로 쏠리자 그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A양은 얼마 전부터 짬짬방에서 스낵바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크고 평

피짐한 옷으로 가슴을 가려왔는데 더운 찻집방에서 일하다 보니 얇은 옷을 입어야 했고 그 때문에 큰 가슴이 노출되자 손님들은 물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가슴이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A양은 가슴 축소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A양이 고백한 가슴이 커서 불편한 점은 ① 맞는 속옷이 없다는 것(국내에선 맞는 속옷을 구할 수 없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속옷을 주문해 입었다고 한다.) ② 한 번도 예쁜 옷을 입어 보지 못하였다는 것(옷을 살 때 예쁜 옷을 골라 본 적이 없고, 자신에게 맞는지, 가슴을 가릴 수 있을지 만을 생각하여 골라야 했던 A양은 평생 소원이 남들처럼 예쁜 옷을 한 번만 입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놀림을 받는 것(학창 시절 놀림을 받았던 아픈 기억 때문에 남들 시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다.)

20대 초반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남들처럼 예쁜 옷도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아줌마처럼 평퍼짐한 옷만 입어야 했다는 A양을 보자 같은 또래의 딸을 둔 아빠로서 가슴이 아팠다.

또 A양을 취재하는 동안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30대 쌍둥이 자매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평생을 큰 가슴 때문에 고민하다가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쌍둥이 자매의 평생 소원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뛰어보는 것이었다. 뛰게 되면 출렁거리는 가슴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같이 뛰어주지도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그동안 큰 가슴 때문에 목, 어깨, 허리 등 온몸에 아프고 걸리지 않는 곳이 없어 남편이 손으로 주무르다 못해 발로 밟아주어도 시원치가 않다고 했다.

우선 A양의 가슴이 정상 치수보다 얼마나 큰지 검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가슴 치수는 한쪽에 200g인데(양쪽 400g), A양의 가슴은 한쪽이 무려 1200g(양쪽 2400g)이나 되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A양이 그동안 남들의 6배나 무거운 가슴 때문에,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였다. A양은 1200g 중 1000g를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한쪽 당 3시간씩 6시간에 걸쳐 총 2kg의 지방을 가슴에서 들어냈다. 매우 큰 대수술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5cm 정도만 절개해도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큰 가슴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은 건드리지 않고 지방만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수술 후 만난 A양은 수술 전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다. 정상 크기로 돌아온 가슴은 물론이고, 우울하고 어두웠던 얼굴에 화색이 돌아 꽃같이 피어난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아 보였다. 또 평생 소원이었던 예쁜 옷을 입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10년 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여성이 10명이면 축소는 1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2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 5명이 가슴 수술을 한다면 그 중 1명은 축소 수술을 한다고 한다. ‘거대 유방증’은 비만 환자가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질병으로 사춘기 때부터 비이상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